

#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 일반서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illokhyeongjian* in the 17th-Century Jeoksangsansago Library

- Focused on General Books -

안 미 경 (Ahn, Mi-Kyung)\*\*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3 작성자            |
| 1.1 연구목적 및 배경        | 4. 「실록형지안」을 통해 본   |
| 1.2 연구내용 및 방법        | 일반서책의 구성과 변동       |
| 2. 적상산사고의 연혁         | 4.1 적상산사고 일반서책의    |
| 2.1 적상산사고 설치 이전 사고들  | 형성과정               |
| 2.2 적상산사고의 설치와 서책 이안 | 4.2 적상산사고 일반서책의 변동 |
| 3.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의 현황 | 5. 결 론             |
| 3.1 작성 시기            | <참고문헌>             |
| 3.2 작성 목적            |                    |

## < 초 록 >

본 연구는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 36건에 수록된 일반 서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선 시대 사고에 소장된 일반서책의 장서 구성과 변동 상황을 추적한 연구이다.

먼저 적상산사고의 연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적상산사고는 1614년에 설치되었지만 새로 편찬한 선조실록을 제외한 나머지 실록들은 1633년 1월 이전까지 여전히 묘향산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나머지 실록들은 1633년 1월 이전까지 여전히 묘향산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나머지 실록들은 1633년 1월 이전까지 여전히 묘향산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적상산사고의 여러 『실록형지안』들은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목적으로는 포쇄, 봉심, 봉안, 고출, 등출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개는 예문관 봉고, 대교, 검열이 작성하였지만 형지안의 작성목적이 봉안, 등출, 고출일 때는 춘추관 당상관과 기사관이 함께 파견되어 작성하였다.

묘향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일반서책 34건과 새로 만들어진 적상산사고의 일반서책 9건이 합쳐져서 적상산사고의 장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묘향산사고의 일반서책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상산사고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17세기 초 실록이 한때 봉안되었던 영변부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서책 97건은 묘향산사고를 거쳐 적상산사고로 옮겨지지 않았다.

적상산사고의 일반서책은 형성된 후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34년 34건이던 것이 1696년 14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처음에는 경전류가 중심이 되다가 의궤류

\* 본 연구는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H00009).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chungahn@hanmail.net)

접수일: 2013년 9월 2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개인의 문집류도 봉안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수의 서책이 한꺼번에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가 다음 형지안에서 목록에 추가되는 현상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히 서책을 봉안하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었으며 사고에 소장된 서책들도 사장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대한 연구를 이어서 수행하고 아울러 규장각 소장 『실록형지안』에 대한 연구까지 종합한다면 조선 후기 왕실 도서 변동의 전체상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구체적 데이터들은 장서각과 규장각의 현전본 장서를 점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존 목록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재정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할 것이다.

要語: 실록형지안, 적상산사고, 묘향산사고, 영변부사고, 일반서책

#### <ABSTRACT>

This study has chased the book collection and change of general book stored in the libraries of Joseon Dynasty by reviewing the general collection of 36 volumes of the 17th-century *Sillokhyeongjian*.

The brief history of Jeoksangsansago says that it was built in 1614, but all the real records except for newly written Seonjosillok were still stored in Myohyangsan mountain up until January 1633. The time when all the other records were completely transferred to Jeoksangsansago, was in 1634.

Many *Sillokhyeongjian* books of Jeoksangsansago were written on an irregular basis, of which purposes were inspection, caring, storage, reading and transcription; most of them were written by Bonggyo Daegyo and Geomyeol officers of Yemungwan, while Dangsanggwon and Gisagwan officers of Chunchugwan were sent and wrote together when its purposes were storage, reading or transcription.

34 general books of Myohyangsan Library and newly made 9 general books formed the collection of Jeoksangsansago. Every general book of Myohyangsan Library was moved into Jeoksangsansago, we confirmed. However, 97 books stored at Yeongbyeonbu Library where the records of the early 17th century is temporarily stored, were not moved to Jeoksangsansago via Myohyangsan Library.

The number of general books at Jeoksangsansago kept increasing since then. 34 books in 1634 drastically increased to 149 in 1696. Beginning from religious books from the beginning, it enlarged to detailed record books and even to private works. Beside, many books were removed from the list at the same time, and then added again at the next Hyeongjian, several times. Through this fact, we would be able to know that the place was not just to store the books and the books were not just stored but actively used.

This study as a beginning, would be able to figure out the overall change of royal book collection at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it is integrated by the study on *Sillokhyeongjian* possessed by Gyujangjak, and the consecutive studies o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Precise date of such work would be useful to check out the present collection of Jangseogak and Gyujanggak, as a very important tool to definitely rearrange the current list.

Key words: *Sillokhyeongjian*, Jeoksangsansago, Myohyangsan Library, Yeongbyeonbu Library, general books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조선시대 史庫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실록이나 선원록을 보관하였다. 이들 서책들은 체계적으로 보관되고 관리되었다. 이러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형지안이다. 형지안은 실록이나 선원록을 봉안한 각 사고에서 포쇄, 고출, 보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고를 열어야 할 때 그 사유와 함께 보관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장서 점검 기록부이다. 형지안에는 실록뿐 아니라 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일반서책에 관한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장서목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형지안이 조선 초기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형지안은 1588년(선조 21) 전주사고에 소장된 형지안이다.<sup>1)</sup> 여기에는 선무랑 김홍휘를 전주사고에 파견하여 포쇄하고 점검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형지안은 몇 건 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형지안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형지안의 제목은 「실록포쇄형지안」, 「실록봉심형지안」, 「실록고출형지안」, 「실록이안형지안」, 「선원록포쇄형지안」, 「선원록봉심형지안」, 「선원록고출형지안」 등 다양하였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다.

이 가운데 「실록형지안」에는 「선원록형지안」에서 볼 수 없는 어제서, 역사서, 지리서, 문집, 의례서 등 일반 서책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히 책의 제목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책의 출처와 책의 보관상태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요즘 작성된 장서 점검 기록부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사항들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간행 시기, 반사서책 등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당시 사고 관리 실태와 해당 서책의 간행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 『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 규장각(奎10002).

한편 『실록형지안』은 대략 2년이나 3년 간격으로 연속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장서구성의 추이를 추적해볼 수 있다. 그리고 형지안의 말미에는 왕명을 받은 봉안사와 사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책의 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이과정과 관리의 명단을 통해 조선시대 서책 관리의 실태와 사고의 장서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 서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사고에 소장된 장서의 변동 상황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선시대의 왕실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형지안은 학계에 그리 널리 알려진 자료는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만이 이를 활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신병주는 『실록형지안』을 일부 활용하여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실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신병주는 일반론적인 연구에 그쳐 『실록형지안』의 세부 기재내용까지는 검토하지는 못했다. 배현숙은 『실록형지안』의 세부내용까지 검토하였지만 『조선왕조실록』에만 국한된 연구였기 때문에 실록 이외의 일반 서책은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 서책에 대해 보다 심화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심화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17세기 적상산사고 소장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 서책 서목에 대한 연구로 국한시켰다.

연구대상 시기를 17세기로 국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의 사고는 왕조 초부터 만들어졌지만 임진왜란을 경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단순히 사고의 위치만 바뀐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고 소장 장서들이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리거나 약탈되었고 전주사고에 소장되었던 실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에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조선 후기 史庫 체계가 새로 시작되므로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는 종적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대상 시기를 17세기로 잡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발점으로 향후 18세기와 19세기에 대한 연구로 이어갈 예정이다.

적상산사고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적상산사고본 「실록형지안」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적상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일반서책은 이리저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전본과 목록을 결부시켜서 연구하기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전본의 관리 실태와 현 목록에서 간과한 정확한 서지정보를 기록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국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 자료는 36건이나 되었다. 연구대상이 된 자료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기초적인 자료조사부터 시작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실록형지안」 자료를 수집하여 이 가운데 실록 이외의 일반 서책에 관한 기재사항을 추출하여 엑셀에 입력하였다.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입력양식을 설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적상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일반 서책들의 구성과 변동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서책별 특징을 밝히기 위해 「실록형지안」의 기재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서의 전체적 구성을 넘어서 각 서책별로 입수된 경위, 책의 보존 상태, 현전 여부 등을 추적하였다.

<표 1> 17세기 적상산사고본 「실록형지안」

번호	작성 연도	작성 연월일	서명	목적	작성자		소장 사고	분류번호
					봉명 관직명	성명		
1	1601.9	선조34.9.10	萬曆二十九年辛丑(1601)九月初十日平安道寧邊府史庫曝曬形止案	포쇄	김열	丁好善	영변부	奎 10005
2	1610.3	광해군2.3.3	萬曆三十八年(1610)三月初三日形止案	포쇄	행대교	李景顔	묘향산	藏2-3790
3	1613.6	광해군5.6.16	萬曆四十一年(1613)六月十六日形止案	포쇄	봉교	尹知養	묘향산	藏2-3756
4	1616.9	광해군8.9.29	萬曆四十四年(1616)九月日形止案	포쇄	행대교	南溟羽	묘향산	藏2-3757
5	1618.9	광해군10.9.21	萬曆四十六年 九月二十一日全羅道形止案	봉안	행대교 지춘주관사	安應魯 李慶全	적상산	藏2-3786 -1
6	1624.4	인조2.4	天啓四年(1624)四月日形止案	포쇄	김열	李垞	묘향산	藏2-3758
7	1625.4	인조3.4.11	天啓五年(1625)4月11日全羅道茂朱縣赤裳山城實錄曝曬	봉안	대교	金窩	적상산	藏2-3785
8	1630.12	인조8.12.24	崇禎3年12月24日形止案	봉심	행대교	鄭[維城]	묘향산	藏2-3792
9	1632.6	인조10.6.18	崇禎5年6月18日全羅道茂朱縣赤裳山城實錄曝曬	포쇄	행대교	李海昌	적상산	藏2-3723
10	1633.2	인조11.2.18	崇禎6年2月18日 形止案	봉심	행대교	蔡[忠元]	묘향산	藏2-3797
11	1634.12	인조12.12.3	崇禎7年12月初3日香山實錄曝曬移安于茂朱赤裳山城	포쇄 이안	행봉교	俞[楨]	적상산	藏2-3793
12	1636.10	인조14.10.13	崇禎9年10月13日茂朱縣赤裳山城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대교	李之恒	적상산	藏2-3717
13	1639.10	인조17.10.22	崇禎12年10月22日赤裳山實錄考出時形止案	고출	김열	李[道長]	적상산	藏2-3779
14	1640.4	인조18.4.28	崇禎13年4月28日茂朱縣山城實錄曝曬形止案	포쇄	김열	趙復陽	적상산	藏2-3718
15	1640.9	인조18.9.7	崇禎13年9月初7日茂朱縣山城實錄考出奉審形止案	고출 봉심	김열	趙復陽	적상산	藏2-3728
16	1643.7	인조21.7.1	崇禎16年7月初1日茂朱縣山城實錄曝曬考出形止案	포쇄 고출	김열	沈[世鼎]	적상산	藏2-3720
17	1645.4	인조23.4	崇禎18年己酉4月日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봉교	李泰淵	적상산	藏2-3759
18	1645.5	인조23.5	崇禎18年乙酉5月日實錄考出形止案	고출	행봉교	李泰淵	적상산	藏2-3731
19	1648.5	인조26.5.7	崇禎戊子5月初7日曝曬形止案	포쇄	행봉교	洪宇遠	적상산	藏2-3760
20	1649.11	인조27.11	己丑11月日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봉교	李尙眞	적상산	藏2-3761
21	1652.9	효종3.9	壬辰9月日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김열	李曾一	적상산	藏2-3762

##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번호	작성 연도	작성 연월일	서 명	목적	작성자		소장 사고	분류번호
					봉 명 관직명	성명		
22	1653.11	효종4.11.8	實錄奉安後曝曬形止案	봉안 포쇄	행김열	李敏叙	적상산	藏귀2-3737
23	1655.3	효종6.3	乙未3月日實錄考出後曝曬形止案	고출 포쇄	행봉교	洪柱三	적상산	藏2-3733
24	1657.4	효종8.4	丁酉4月日實錄考出後曝曬形止案	고출 포쇄	행김열	李[行道]	적상산	藏귀2-3734
25	1660.4	현종1.4	順治17年4月日赤裳山實錄考出形止案	고출	행봉교	宋昌	적상산	藏귀2-3730
26	1660.8	현종1.8	順治17年8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봉교	俞命胤	적상산	藏2-4908
27	1661.11	현종2.11.10	順治18年11月日實錄奉安後曝曬形止案	봉안 포쇄	행봉교	俞命胤	적상산	藏2-4905
28	1665.12	현종6.12	康熙4年12月日赤裳山實錄謄出後曝曬形止案	등출 포쇄	행부호군 행대교	李[某] 崔[某]	적상산	藏귀2-3780
29	1672.8	현종13.8	康熙11年8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봉교	尹[致績]	적상산	藏2-3746
30	1677.10	숙종3.10.8	康熙16年10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봉안 포쇄	행대교	尹[義濟]	적상산	藏2-3781
31	1681.8	숙종7.8	康熙20年8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봉교	鄭[濟先]	적상산	藏귀2-3747
32	1685.9	숙종11.8	康熙24年9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봉안 포쇄	행봉교	李[玄祚]	적상산	藏2-4911
33	1689.9	숙종15.9	康熙28年9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포쇄	대교	朴[澁]	적상산	藏귀2-3783
34	1690.5	숙종16.5	康熙29年5月日赤裳山實錄考出時形止案	고출	한성부관윤 행봉교	俞[夏益] 李[寅樺]	적상산	藏귀2-3729
35	1691.9	숙종17.9	康熙30年9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대교	閔[某]	적상산	藏귀2-3763
36	1696.6	숙종22.6	康熙35年6月日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	포쇄	행봉교	閔[鎭遠]	적상산	藏2-3784

## 2. 적상산사고의 연혁

### 2.1 적상산사고 설치 이전 사고들

조선시대 외사고의 설치는 충주사고로부터 비롯되었다. 1431년(세종 13) 3월 『태종실록』을 완성하고 4월에 춘추관사고본 이외의 정본 1건을 더 필사하게 하여

檢閱 金文起로 하여금 충주사고에 봉안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sup>2)</sup> 그 뒤를 이어 설치된 것이 성주사고와 전주사고이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의 사고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고들이 임진왜란으로 인해 모두 소실되었고 전주사고에 봉안되었던 실록만이 남게 되었다. 전주사고에 봉안되었던 실록은 선조 27년 9월부터 부분 필사되기 시작하여 선조 39년 4월에 새로 인쇄된 실록의 교정과 세보가 마무리 되었다. 이때 구분은 위협에 대비하여 강화사고에 보관하고, 새로 간인한 것은 춘추관, 묘향산사고, 태백산사고에 각각 보관하였으며, 교정본은 오대산사고에 분산하여 보관하였다.<sup>3)</sup> 이로써 조선 후기 사고체제의 기본 골자가 마련되었다. 각 사고의 연혁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화사고에 실록과 일반 서책이 처음 이안된 것은 선조 28년의 일이었지만 선조 30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실록을 다시 묘향산으로 옮겨갔다가 선조 36년 5월에는 다시 강화도로 이안하였다. 후에 마니산에 있었던 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새로운 사고로 건립된 것이 바로 정족산사고이다. 정족산사고는 1660년(현종 1)에 11월에 완공되어 그 해 12월 실록이 이안되었다. 정족산사고의 건물은 단층 건물로 건립되어 조선말까지 지속되다가 1918년과 1919년 사이에 철거되었고 1999년에 다시 중건되었다.<sup>4)</sup>

태백산사고는 1606년(선조 39) 설치되었다. 태백산사고의 위치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 2리 각화사 근처로 알려져 있고 사고건물은 1910년 일제가 실록을 강탈한 후 방치되어 현재 사고지만 남아 있다. 충주사고의 맥을 이은 오대산 사고는 선조 39년 5월 실록을 월정사에 봉안하면서 비롯되었다. 건립 당시 건물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1909년 궁내부에서 조사한 『오대산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sup>5)</sup>

2) 『朝鮮王朝實錄』 세종 13년 4월 25일.

3) 『朝鮮王朝實錄』 선조 39년 5월 7일.

4) 李在郁, “李朝實錄의 成立に就て,” 『文獻報國』 제3집 12호(昭和12. 12), 21.

5) 궁내부, 『五臺山史庫調査報告書』(1909).

춘추관사고는 임진란 이후 실록의 신인본을 봉안하였으나 인조 2년 2월 이괄의 난으로 산일되었다.<sup>6)</sup> 산일되고 남은 실록은 강화도의 마니산에 봉안되었는데 그마저도 산일된 것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이 때 마니산사고본 실록도 일부 산일되었다.<sup>7)</sup> 1811년(순조 11) 윤 3월에는 예문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실록 72상자 중 66상자가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sup>8)</sup> 고종 이후의 춘추관사고 실록의 행방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

묘향산사고는 임진왜란 이후 복인한 실록을 분산하여 보관하자는 건의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러나 묘향산은 한반도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성 여부가 늘 논란이 되었다. 새로 대두한 후금의 위협과 사고 관리의 소홀로 인한 소장도서의 망실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고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610년(광해군 2) 사관을 적상산으로 보내 지형을 살피게 하고 산성을 수리하게 하였으며<sup>9)</sup> 4년 뒤인 1614년(광해군 6)에 적상산성 내에 실록전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적상산사고가 설치되었지만 묘향산사고에 있던 서책을 이곳에 이안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적상산사고가 설치된 지 19년 뒤인 1633년(인조 11) 1월에 가서야 비로소 묘향산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실록 등 여러 서책들을 적상산으로 옮기고 묘향산 사고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외사고가 5개에서 4개로 축소된 셈이다.

## 2.2 적상산사고의 설치와 서책 이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상산사고는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성 안에 설치했던 사고이다. 현재 장서각에 1618년 9월 21일 작성된 『전라도형지안』이 소장되어 있고<sup>10)</sup> 여기에 『선조실록』 116권과 『동국신속삼강행실』 1권 18책이

6) 『朝鮮王朝實錄』 인조 2년 2월 2일.

7) 『朝鮮王朝實錄』 인조 15년 2월 27일.

8) 末松保和, “李朝實錄考略,” 『靑丘史草』 2(昭和 41), 303.

9) 『적성지』 권5 고적조.

10) 『萬曆 46年(1618) 9월 21일 全羅道形止案』 장서각(K2-3786).

수록되어 있는데 『동국신속삼강행실』 1권 18책에 대해 “初定於香山 今藏赤裳山城”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묘향산에서 적상산성으로 옮겨온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묘향산 사고로부터 적상산사고로 실록을 비롯한 서책들이 완전히 이안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는데 이 과정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624년(인조 2) 이괄이 영변에서 난을 일으키자 실록을 적상산으로 전부 옮기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628년(인조 6)에는 姜碩期가 사고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묘향산사고의 실록을 모두 적상산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의는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11)</sup> 1629년(인조 7) 張維가 실록을 영변에다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말을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지만 실록 수송의 어려움을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sup>12)</sup> 1631년(인조 9) 尹昉이 香山의 실록을 적상산에 보관하도록 아뢰었으나 내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였을 뿐이다.<sup>13)</sup> 하지만 이렇게 거듭된 건의에 못 이겨 1633년(인조 11) 1월에 비로소 인조의 허락이 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인조실록』에 수록된 “춘추관에서 사관을 보내 묘향산의 실록을 적상산성으로 옮길 것을 청하니 따랐다”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상산사고가 설치된 것은 1614년이지만 1633년 1월 이전까지는 실록이 묘향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실록이 적상산사고로 이안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장서각에 소장된 형지안 중 1634년(인조 12) 12월 초3일에 작성된 『香山實錄曝曬移安茂朱赤裳山城形止案』<sup>15)</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형지안은 실록 14건과 일반 서책 24건을 포쇄한 후 묘향산에서 적상산성으로 移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 형지안에 수록된 30건의 책마다 각각 “香山來 甲戌奉安”이라 하여 묘향산에서 옮겨와

11) 『朝鮮王朝實錄』 인조 15년 7월 18일.

12) 『朝鮮王朝實錄』 인조 7년 3월 8일.

13) 『朝鮮王朝實錄』 인조 9년 11월 1일.

14) 『朝鮮王朝實錄』 인조 11년 1월 23일.

15) 『香山實錄曝曬移安茂朱赤裳山城形止案』 장서각(귀K2-3793).

甲戌年에 적상산성으로 봉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갑술년은 1634년(인조 12)에 해당하므로 1634년 12월 초3일 적상산사고로 완전히 이관되고 묘향산사고는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41년(인조 19)에는 적상산에 璿源閣이 건립되어 『璿源錄』까지 봉안하게 됨으로써 적상산사고는 완전한 사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적상산사고에 봉안된 실록은 후일 병자호란 때 摩尼山史庫의 실록이 散失되어 이를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할 때 활용되었다. 이 작업은 1666년(현종 7)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 적상산사고 실록을 바탕으로 등사·교정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에는 三道 儒生이 300명이나 동원되었다.

사고 설치 직후에는 승려 德雄이 승병 92명을 모집해 산성을 수축하고 分番을 정해 사각을 수호하였다. 정묘호란 때에는 사고를 지킬 사람이 없어 승려 尙誨이 사고의 서책을 성 밖의 석굴로 옮겨 보관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 사고에 다시 봉안하기도 하였다. 사고의 수호를 위해 1643년 산성 안에 호국사를 창건해 수호 사찰로 하기도 하였다. 조선 말기에 사고가 퇴락해 1872년(고종 9) 실록전과 선원각을 개수했으며, 1902년에도 대대적인 개수 공사를 하였다. 1910년 조선의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실록을 舊皇室文庫로 편입해 장서각에 보관하였으나 散秩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적상산성의 실록전과 선원각의 건물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선원각은 인근 安國寺의 경내로 옮겨져 千佛殿으로 전해오고 있다.

### 3.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의 현황

#### 3.1 작성 시기

17세기 적상산사고와 관련된 「실록형지안」은 총 36건이 남아있다. 왕대별로 살펴보면 선조대 1회, 광해군대 4회, 인조대 15회, 효종대 4회, 현종대 5회, 숙종대

7회 작성되었다. 이 가운데 인조 대에 가장 많이 작성되었는데 이때 묘향산사고로부터 적상산사고로 실록이 移安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태까지 형지안의 작성은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 조사 결과 1년의 간격이 7건, 2년과 3년의 간격이 6건, 4년의 간격이 5건 순으로 조사되어 17세기 형지안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世宗實錄』을 살펴보면 포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시정기 한 벌을 매양 포쇄하는 해[年]가 돌아올 때마다 법식에 의하여 충주 사고에 수장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으며<sup>16)</sup> 의정부에서 올린 계에 따라 춘추관 사고의 문서는 과거 식년의 예에 의거하여 2년을 걸러서 辰年·戌年·丑年·未年에 햇벌에 쪼이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sup>17)</sup>

17세기에 작성된 형지안가운데 포쇄한 후 작성한 형지안을 뽑아내면 총 36건 중 27건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辰年·戌年·丑年·未年에 작성된 것은 13건에 지나지 않는다.<sup>18)</sup> 그러나 나머지 14건은 子年, 申年, 酉年, 巳年에 작성되었다.<sup>19)</sup> 따라서 17세기 『실록형지안』은 어떤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록형지안』의 작성 시기를 월별로 보면 9월에 7건, 4월에 6건, 8월에 4건, 6월·12월·10월·5월·11월에 각 3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봄은 4월에, 가을은 9월에 청명한 길일은 택하여 형지안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 『朝鮮王朝實錄』 세종 16년 11월 5일.

17) 『朝鮮王朝實錄』 세종 28년 10월 8일.

18) 1601년(신축), 1610년(경술), 1613년(계축), 1616년(병진), 1634년(갑술), 1640년(경진), 1643년(계미), 1649년(을축), 1652년(임진), 1655년(을미), 1661년(신축), 1685년(을축), 1691년(신미).

19) 1624년(甲子), 1632년(壬申), 1632년(丙子), 1645년(乙酉), 1648년(戊子), 1653년(癸巳), 1657년(丁酉), 1660년(庚子), 1665년(乙巳), 1672년(壬子), 1677년(丁巳), 1681년(辛酉), 1689년(己巳), 1696년(丙子).

### 3.2 작성 목적

「실록형지안」 36건을 대상으로 그 작성목적은 살펴보기로 하자. 「실록형지안」의 작성목적으로는 포쇄 18건, 봉안후 포쇄 4건, 고출 4건, 봉심 2건, 봉안 2건, 고출후포쇄 2건, 고출후봉심 1건, 포쇄후이안 1건, 포쇄후고출 1건, 등출후포쇄 1건 등이 조사되었다.

「포쇄형지안」은 사고에 보관된 서책을 꺼내어 습기를 제거하고 두층을 막기 위해 바람과 햇볕을 쏘인 후 작성된 형지안이다. 17세기 작성된 「실록형지안」 36건 가운데 50%를 차지하고 있는 18건이 「포쇄형지안」에 속한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포쇄형지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포쇄형지안」이 처음으로 작성된 것은 1601년으로 영변부사고 때부터 시작되었다. 영변부사고는 1601년(선조 34) 1월 13일 춘추관이 실록을 영변부로 옮길 것을 건의한 것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실록이 영변부로 이안되었고 9월 10일 「실록형지안」이 작성되었다. 당시 실록을 살펴보면 1질 밖에 없는 실록이 정유재란 때 강화에서 묘향산의 절간으로 옮겨 왔는데 절간의 집들이 지붕이 서로 닿아있고 부엌도 가까워서 뜻밖의 재난을 당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시절 변방의 시끄러움이 그치지 않아 옮길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時事도 조금은 안정이 되었으니 묘향산에다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라고 하였다. 또 지난 번 臺諫의 아뢰므로 인하여 실록을 등서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두도록 이미 윤희하신 바도 있으니 실록을 등서하자면 거기 그냥 두어서는 더욱 불편하니 영변부 안에 집 1채를 별도로 선정하여 그곳으로 즉시 옮겨 봉안하자고 하였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졌다.<sup>20)</sup>

「봉안후포쇄형지안」은 말 그대로 실록을 새로 봉안하면서 아울러 기존의 서책의 포쇄를 행한 뒤 작성한 형지안이다. 1653년 11월, 1661년 11월, 1677년 10월, 1685년 9월 등 4건의 「봉안후포쇄형지안」이 작성되었다. 이 가운데 1653년 11월에 작성된 형지안은 총재관인 김육, 대제학 채유후 등이 만들어 바친 『인조대왕실

20) 『朝鮮王朝實錄』 선조 34년 1월 13일.

록』 50권을<sup>21)</sup> 11월 8일 적상산사고에 봉안한 후 포쇄를 마치고 작성한 것이다. 1661년 11월에 작성된 형지안에 대해서도 『현종실록』에 윤 7월2일 『효종대왕실록』을 편찬한 총재관 이하에게 술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sup>22)</sup> 8월 20일 『효종대왕실록』을 강화도, 오대산, 적상산, 태백산에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3)</sup> 그러나 실제 형지안이 작성된 날짜는 11월 10일이었다. 이 두 기록을 통해 보면 봉안과 포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80여일의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77년 10월에 작성된 형지안은 『현종대왕실록』 22권을 봉안하면서 포쇄한 형지안이다. 실록에 의하면 『현종대왕실록』 22권이 완성되어 9월 11일 실록청이 차일암에서 세초하니 이어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sup>24)</sup> 이 기록에 따르면 봉안대상이 되었던 것은 『현종대왕실록』이었고 적상산사고에 이를 봉안하고 기존의 실록들을 포쇄한 후 형지안을 작성한 때는 10월 8일이었다. 1685년 9월에 작성된 형지안은 『현종개수실록』을 봉안하고 기존의 실록들을 포쇄한 후 작성한 형지안이다. 실록에 따르면 예조 판서 趙師錫이 “『改修實錄』을 지금 적상산성에 봉안해야 하는데, 옮겨 봉안할 때 의례히 음악을 쓰는 일을 지금에 쓰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고 아뢰자 그대로 따르다”라는 기록이 있다.<sup>25)</sup> 이 기록으로 보면 『현종개수실록』을 적상산사고에 봉안한 때와 형지안을 작성한 때는 같은 9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출형지안」이란 고출을 한 뒤 작성한 형지안이다. 고출이란 전례가 분명치 않은 중대한 절목이나 국가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전례를 참고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관을 파견하여 실록이나 기타 서책에서 필요한 기사를 초록해 오는 것을 말한다. 적상산사고에 수장된 고출형지안으로는 1639년본, 1645년본, 1660년본, 1690년본 등 4건이 있다.

21) 『朝鮮王朝實錄』 효종 4년 7월 1일.

22) 『朝鮮王朝實錄』 현종 2년 윤7월 2일.

23) 『朝鮮王朝實錄』 현종 2년 8월 20일.

24) 『朝鮮王朝實錄』 숙종 3년 9월 11일.

25) 『朝鮮王朝實錄』 숙종 11년 9월 3일.

「봉심형지안」이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사고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점검한 뒤 작성한 형지안이다. 적상산사고에 소장된 봉심형지안으로는 1630년 12월본과 1633년 11월본이 있다.

「고출후포쇄형지안」은 고출을 한 후 아울러 포쇄까지 행한 뒤 작성한 형지안이다. 1655년 3월본과 1657년 4월본이 있는데 1657년(효종 8) 4월 형지안은 『선조실록』의 내용을 고출하고 포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효종실록』에 자세한 기록이 실려 있다. 1657년 3월 실록수정청이 『선조실록』을 수정하면서 빠진 내용을 적상산사고에서 베껴오도록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다.<sup>26)</sup> “선조조실록은 정묘년부터 임진년까지 26년은 이미 中草를 썼고, 계사년 이후부터 병신년까지 4년은 쓰고 있으나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李植이 적상산사고에서 상고해서 찬술한 것입니다. 정유년 이후 정미년까지의 실록은 강화도에서 가져왔는데, 11년 동안에서 빠진 것이 32개월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상고할 곳이 없으니, 본청의 당상과 낭청 각 한 명을 사관과 함께 적상산사고에 보내어 상고하여 베껴오도록 하소서. 그리고 병신년 이전의 것으로 이미 수정한 것은 그것대로 먼저 인쇄하고, 정유년 이후의 아직 수정하지 못한 것은 베껴오기를 기다렸다가 빠진 달을 보충하면, 아마도 새해 전에 완전히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선조실록』을 개수하기 위하여 상고할 수 없는 부분을 적상산사고의 실록에서 고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출후봉심형지안」은 고출을 한 후 아울러 봉심까지 행한 후 작성한 형지안이다. 1640년(인조 18) 9월본이 있다. 「봉안형지안」은 실록을 봉안한 후 작성한 형지안이다. 1618년(광해군 10) 9월 『선조대왕실록』을 봉안한 다음 작성한 형지안이 남아 있다. 「포쇄후이안형지안」으로는 1634년(인조 12)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평안도 묘향산사고의 실록과 일반 서책을 포쇄한 뒤 무주 적상산성으로 이장할 때 기록한 것이 하나 남아있다. 이 형지안은 묘향산사고의 장서내용과 적상산성으로 이안된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적상산성으로 이안이 논의된 것은 1633년(인조 11) 1월 23일이다. “춘추관이 사관을 파견하여 묘향산의 실록을

26) 『朝鮮王朝實錄』 효종 8년 3월 15일.

적상산성으로 옮길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라는 실록의 기록이 있으므로<sup>27)</sup> 실제 시행된 것은 거의 1년 뒤라고 할 수 있다.

『포쇄후고출형지안』으로는 1643년(인조 21) 7월 1일에 작성된 형지안을 들 수 있다. 1643년 5월 22일자 실록 기사에 의하면 이조 판서 李景儻이 실록의 개수를 계속 지연시킬 수 없다고 하고 원로대신과 두세 명의 사관을 잃어버린다면 끝내 개수할 기회가 없다고 청하였다. 그리고 검열 沈世鼎이 이번에 적상산에 포쇄하기 위해 가는 길에 대제학 李植으로 하여금 함께 내려가 살펴보고 와서 史局을 설치하여 찬수하게 할 것을 청하자 허락하였다.<sup>28)</sup> 이 형지안은 실제 심세정이 작성한 것으로 실록의 기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출후포쇄형지안』으로는 1665년(현종 6) 12월에 작성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형지안에서는 『효종대왕실록』이 추가되었다. 『현종실록』 1664년(현종 5) 11월 23일자 기사에 의하면 우상 許積이 왕에게 “국가의 역사서는 매우 중요하니 다른 폐단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외방에 소장된 실록을 즉시 봉행해 가져와서 베껴 쓰고 빠진 데를 보충해야 합니다”라고 아뢰니 “명년 정월에 적상산에 소장된 것을 받들어 가져와 베껴 쓰라”고 명하였다.<sup>29)</sup> 이러한 명에 따라 이듬해 등출한 후 포쇄한 것으로 여겨진다.

### 3.3 작성자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 36건을 작성한 사관은 총 39명으로 조사되었다. 대개 하나의 형지안은 1명의 사관이 작성하였는데 1618년, 1665년, 1690년에는 각각 2명의 사관이 형지안을 작성하였다. 이들 형지안의 작성목적이 봉안, 등출, 고출일 때 춘추관 당상과 기사관이 함께 파견되어 작성하였다.

1618년에는 지춘추관사 이경진과 춘추관기사관 안응로가 파견되었고, 1665년에는 지춘추관사 이[某]와 춘추관 기사관 최[某]가 파견되었다. 1690년에는 지춘

27) 『朝鮮王朝實錄』 인조 11년 1월 23일.

28) 『朝鮮王朝實錄』 인조 21년 5월 22일.

29) 『朝鮮王朝實錄』 현종 5년 11월 23일.

추관사 유희익과 춘추관 기사관 이황하가 파견되었다. 俞夏益은 1690년(숙종 16) 4월 외방의 여러 곳에 사관을 보내어 실록을 살펴보고 건의한 인물로<sup>30)</sup> 실제 1690년(숙종 16) 5월 적상산에 파견되어 「실록형지안」을 작성하였다. 그 외에는 대개 춘추관 기사관만 파견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명의 사관이 두 차례에 걸쳐 형지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조복양(1640년 4월, 9월), 이태연(1645년 4월, 5월), 유명운(1660년 8월, 1661년 10월)으로 이들 사관은 비슷한 시기에 봉안, 고출, 등출 등의 목적으로 형지안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복양은 1640년(인조 18) 2월 7일자로 검열로 제수 받고<sup>31)</sup> 그 해 4월과 5월에 적상산사고에 파견되어 형지안을 작성하였다.

여기서 이들 형지안작성에 참여한 사관의 관직을 살펴보면 예문관 봉교 15명, 예문관 대교 12명, 예문관 검열 9명, 한성판윤, 부호군, 지춘추관사 각각 1명씩 참여하였다. 예문관의 봉교, 대교, 검열은 주로 춘추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직으로 문과에는 급제하였지만 그 직위는 낮고 예문관의 본직인 교지나 유서 등을 작성하고 조정의 중대회의에 참석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 4. 「실록형지안」을 통해 본 일반서책의 구성과 변동

앞서 「실록형지안」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17세기 적상산사고 소장 일반서책의 구성과 변동의 전체적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는 17세기 작성된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 36건에 기재된 일반서책들을 실록과 일반서책으로 나누어 전체 건수와 추가 및 삭제 등 변동된 내용을 시기별순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0) 『朝鮮王朝實錄』 숙종 16년 4월 26일.

31) 『朝鮮王朝實錄』 인조 18년 2월 7일.

<표 2> 17세기 「실록형지안」 수록 서책수의 시기별 변동

작성시기	1601. 9	1610. 3	1613. 6	1616. 9	1618. 9	1624. 4	1625. 4	1630. 12	1632. 6	1633. 2	1634. 12	1636. 10
사 고	영변부	묘향산	묘향산	묘향산	적상산	묘향산	적상산	묘향산	적상산	묘향산	통합이후 적상산	이후 적상산
총 건수	110	16	28	40	2	40	2	40	10	47	44	55
실록건수	13	13	13	13	1	13	1	13	1	13	14	15
일반서책 건 수	97	3	15	27	1	27	1	27	9	34	30	40
추가	실록 /	/	0	0	/	0	0	0	0	0	/	1
삭제	일반 /	/	12	12	/	0	0	0	9	11	/	10
	실록 /	/	0	0	/	0	0	0	0	0	/	0
	일반 /	/	0	0	/	0	0	0	1	4	/	0
작성시기	1639. 10	1640. 4	1640. 9	1643. 7	1645. 4	1645. 5	1648. 5	1649. 11	1652. 9	1653. 11	1655. 3	1657. 4
사 고	영변부	묘향산	묘향산	묘향산	적상산	묘향산	적상산	묘향산	적상산	묘향산	통합이후 적상산	이후 적상산
총 건수	49	36	68	69	71	72	72	74	79	75	85	88
실록건수	14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일반 서책 건 수	35	21	53	54	56	57	57	59	64	59	69	72
추가	실록	0	1	0	0	0	0	0	0	1	0	0
	일반	1	8	33	2	3	1	0	2	5	1	3
삭제	실록	1	0	0	0	0	0	0	0	0	0	0
	일반	6	22	1	1	1	0	0	0	6	0	0
작성시기	1660. 4	1660. 8	1661. 11	1665. 12	1672. 8	1677. 10	1681. 8	1685. 9	1689. 9	1690. 5	1691. 9	1696. 6
총 건수	89	89	89	122	130	142	156	158	165	166	169	169
실록건수	16	16	16	18	18	19	19	19	20	20	20	20
일반 서책 건 수	73	73	73	104	112	123	137	139	145	146	149	149
추가	실록	0	0	0	2	0	1	0	1	0	0	0
	일반	1	0	0	32	9	11	21	2	7	3	8
삭제	실록	0	0	0	0	0	0	0	0	0	0	0
	일반	0	0	0	1	1	0	7	0	1	2	8

먼저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실록의 수의 변동부터 살펴보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618년본, 1625년본, 1632년본에는 실록이 1건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록이 묘향산사고에서 적상산사고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인 현상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614년(광해군 6)에 적상산성 내에 실록전을

건립하여 이른바 적상산사고를 설치하였는데 1618년에 여기에 선조실록 1건을 봉안하면서 작성한 것이 바로 1618년본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나머지 실록들은 여전히 묘향산사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실록 전체의 이안을 완료하면서 작성한 것이 1634년본이다. 그때까지는 실록이 묘향산과 적상산 두 사고에 나누어 있었고, 형지안도 별도로 작성된 것이다. 1634년본에 와서야 비로소 두 사고의 실록이 합쳐져 14건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1634년본 이후로는 수록된 실록의 숫자가 왕대가 늘어날 때 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 편찬한 실록이 봉안된 것이다. 다만 1639년본의 경우 일시적으로 1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의 형지안이 고출형지안이므로 1건은 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고출된 실록 1건은 1640년 4월 이전에 반납된 것으로 보인다. 1640년 본에서는 실록의 건수가 다시 15건으로 늘어났다.

다음으로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수의 변동을 살펴보자. 우선 1601년 본에서 97건이던 것이 1610년 본에서는 3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그 이유는 사고의 변동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실록이 영변부사고에서 묘향산사고로 옮겼다. 그런데 영변부사고에 있었던 일반서책의 경우는 실록과는 달리 묘향산사고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601년 당시 영변부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일반서책 중 『용비어천가』를 제외한 나머지 서책들을 이후 묘향산사고나 적상산사고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서책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후 묘향산사고에 소장된 일반서책의 숫자는 3건에서 출발하여 34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세운 적상산사고의 경우 1618년본과 1625년본의 경우 일반서책이 1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1632년본에 와서야 비로소 9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록의 경우 1634년본 단계에서 양 사고의 것이 통합되었다. 일반서책의 경우도 합쳐지면 총 43건이 되어야 하겠지만 1634년본의 일반서책의 숫자는 1633년에 수록된 묘향산 사고의 일반서책의 숫자 34건보다 오히려 적은 30건이다. 1636년본의 단계에 가면 40건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도 두

사고의 일반서책의 숫자를 합친 43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서책의 경우 이안과정이 실록보다는 복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반서책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어 1640년 4월본에는 21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1639년의 형지안이 고출형지안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상당수의 서책이 고출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640년 9월본 이후로는 일반서책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고가 실록 이외에 일반서책도 수집하여 보관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1 적상산사고 일반서책의 형성과정

이상에서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실록과 일반서책의 양적인 변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고에 소장된 일반서책의 구성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 서책의 목록 가운데 추가되거나 삭제된 현황을 영변부사고 소장 일반서책, 묘향산사고 소장 일반서책, 1632년 이전 적상산사고 소장 일반서책, 묘향산사고와 적상산사고 소장 일반서책 통합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통해 적상산사고 일반서책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추가나 삭제의 기준은 바로 직전시기 작성된 『실록형지안』이다.

##### 4.1.1 영변부사고 소장 일반서책

1601년본 『실록형지안』에 따르면 당시 영변부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일반서책은 총 97건이었다. 이 책들 중 『용비어천가』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17세기 적상산사고본 『실록형지안』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록을 영변부사고에서 묘향산 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반서책은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들이 어디로 갔는지 현재로서는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알 수 없다. 현재로서 확인되는 것은 서명뿐이다. 서명으로 보아 이 책들은 역사류, 천문산법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표 3> 1601년 영변부사고 소장 일반서책 현황

총 97건	
授時曆立成上 1건1책	貞觀政要 *2건(각1건7책)
宣明歷要 1건1책	高麗史節要 *3건(2건70책, 1건22책)
宣明歷經 1건1책	易學啓蒙 *2건(각1건2책)
宣明歷步交會 1건1책	北征錄 *2건(각1건1책)
大陰通軌 1건1책	曆代兵要 *3건(각1건4책)
大陽通軌 1건1책	國朝寶鑑 *3건(각1건1책)
宣德五星凌犯 1건1책	初學字會 *3건(각1건1책)
大統曆日通軌 1건1책	陣法 *2건(각1건1책)
庚午元曆 1건1책	三國史節要 1건7책
重修大明曆 1건1책	唐太宗帝範 1건1책
緯度大陽通軌 1건1책	高麗史目錄年表世家 *2건(각1건27책)
授時曆議 1건1책	高麗史列傳 *3건(1건9책, 1건9책, 1건35책)
交食通軌 1건1책	高麗史志 *2건(각1건25책)
四餘纏度通軌 1건1책	高麗史節要字標 1건35책
五星通軌用數目錄 1건1책	高麗史節要斤標 1건22책
授時曆經 1건1책	高麗全史日標 1건43책
回回曆法 1건1책	高麗全史劔標 1건47책
回回曆書 1건1책	各年曝曬案 1건2책
五星通軌 1건1책	高麗史 *2건(1건17책, 1건8책)
回回曆各年交食 1건1책	三國史 *3건(각1건3책)
授時曆捷法成上 1건1책	東文選 *8건(1건22책, 1건6책, 1건68책, 2건9책, 1건62책, 1건56책, 1건8책)
回回曆緯度立成 1건2책	東國史略 1건4책
七政算 1건8책	東國通鑑 *4건(1건22책, 2건28건, 1건19책)
回回曆經度立成 1건3책	龍飛御天 *2건(각1건5책)
貢案 1건3책	三國史記 *2건(1건9책, 1건1책)
兵將設 *2건(각1건1책)	輿地勝覽 1건19책
交食推步法 *2건(각1건1책)	東國史記 1건13책
訓辭 *2건(각1건1책)	古日記 1건5책
觀音現相記 *2건(각1건1책)	李廷馨野史 1건1책
射侯詩 *3건(각1건1책)	宣靖陵改葬儀軌 1건2책

#### 4.1.2 묘향산사고 소장 일반서책

1610년본 묘향산사고 「실록형지안」은 일반서책으로 『국조병감』 1건2책, 『언해주역』 1건6책, 『황화집』 1건36책 등 3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것이 묘향산사고 일반서책의 출발점이 된다. 이 가운데 『국조병감』 1건은 『동국병감』이라는 異書名으로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표지 이면에는 墨書識記로 만력36년 묘향산사고에 올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1610년본 「실록형지안」이 작성되기 2년 전에 이 책이 묘향산사고에 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32)</sup>

1610년본 「실록형지안」에는 『황화집』 1건 36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장서각에는 훈련도감자로 간행된 『황화집』 22건이 완질본이 아닌 결본으로 현전한다. 이 가운데 2건은 표지에 1606년 9월에 묘향산사고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sup>33)</sup> 19건은 1608년 9월에 묘향산사고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34)</sup> 그리고 나머지 1건은 1610년본 「실록형지안」이 작성된 지 6개월 뒤인 1610년 9월에 묘향산사고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sup>35)</sup> 모두 완질본이 아닌 결본으로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이렇게 1610년본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황화집』의 가운데 다수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지만 목록이 정확하지 않아 식별에 어려운 점이 있다.

1613년본 「실록형지안」에는 12건의 일반서책이 추가되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사서절요』 1건10책, 『언해맹자』 1건7책, 『언해중용』 1건1책, 『언해소학』 1건4책, 『언해논어』 1건4책, 『용비어천가』 1건5책, 『벽온방』 1건1책, 『여지승람』

32) 『東國兵鑑』(K3-273) 2권2책.

表紙裏面墨書識記: 萬曆36年(1608) 9月日 東國兵鑑1件 妙香山史庫上.

33) 『皇華集』(K4-357) 6권6책.

表紙裏面墨書識記: 萬曆34年(1606) 9月日 皇華集1件 妙香山實錄史庫上.

『皇華集』(K4-358) 1권1책.

表紙裏面墨書識記: 萬曆34年(1606) 9月日 皇華集 妙香山史庫上.

34) 『皇華集』(K4-359~377) 19건28책.

表紙裏面墨書識記: 萬曆36年(1608) 9月日 皇華集 妙香山史庫上.

35) 『皇華集』(K4-378) 1건1책.

表紙裏面墨書識記: 萬曆38年(1610) 9月日皇華集 妙香山史庫上 右丞旨臣洪(手決).

1건25책, 『국조오례의』 1건8책, 『좌전』 1건14책, 『악학궤범』 1건3책, 『내훈』 1건3책 등이다. 이 가운데 먼저 『용비어천가』 1건5책이 주목된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영변부사고에 소장되었던 일반장서 가운데 『용비어천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1610년본 「실록형지안」에 『용비어천가』가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1613년본에 수록된 『용비어천가』가 영변부사고에 있었던 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뒤늦게 옮겨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된 12건의 일반서책 가운데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책은 『주자서절요』, 『언해소학』, 『국조오례의』, 『좌전』 등 4건이다. 『주자서절요』는 현전본 내사기에 의하면 1612년 12월에 묘향산에 편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sup>36)</sup> 『언해소학』은 1613년본 「실록형지안」에서 잘못 기재한 듯하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소학집주대전』의<sup>37)</sup> 내사기에 의하면 『소학』 1건이 1612년 12월에 묘향산에 편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언해소학』은 『소학집주대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8)</sup> 그리고 『국조오례의』는 현전본 표지 이면에 1611년 4월 묘향산사고에 편입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sup>39)</sup> 또한 장서각에는 『春秋經傳集解』란 서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표제와 판심제는 “左傳”으로 되어 있어서 1613년본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좌전』과 동일한 서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경우도 내사기에 1611년 정월 묘향산사고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40)</sup>

묘향산 사고의 일반 서책은 이후 계속 추가되어 1616년본 단계에 이르면 12건이 더 추가되어 27건을 헤아리게 된다. 추가된 12건은 『동의보감』 1건25책, 『훈의

36) 『朱子書節要』(귀K3-135) 20권10책.

內賜記: 萬曆40年(1612) 12月日 內賜香山 朱子書節要1件上 右承旨臣李(手決).

37) 이후 「실록형지안」에는 『언해소학』 대신 『소학』으로 기재된다.

38) 『小學集註大全』(K3-44) 6권4책.

內賜記: 萬曆40年(1612) 12月日 內賜小學1件 香山上 右承旨臣李(手決).

39) 『國朝五禮儀』(K2-2113) 13권8책.

表紙裏面墨書識記: 萬曆39年(1611) 4月日 五禮儀1件 香山實錄史庫上.

40) 『春秋經傳集解』(K1-129) 30권14책.

內賜記: 萬曆39年(1611)正月日 內賜左傳1件 香山上.

강목』 1건76책, 『고려사』 1건85책, 『시경언해』 1건10책, 『고사촬요』 1건2책, 『훈몽자회』 1건1책, 『벽온방』 1건1책, 『벽역신방』 1건1책, 『정릉비문』 1건, 『대전속록』 1건5책, 『사성통해』 1건2책,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1책 등이다. 이 가운데 『훈의강목』이 장서각에 소장된 현전본 가운데 확인된다. 현전본 『훈의강목』의 표지 이면에는 1614년 9월 묘향산사고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sup>41)</sup> 1614년 9월 7일자 실록에도<sup>42)</sup> “『훈의강목』 5건은 실록을 봉안한 곳에 나누어 간수하고, 3건은 안으로 들이도록 하라.”라고 기재하고 있어 1616년본 『실록형지안』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벽온방』 1건1책은 여기서 1건 더 추가되는데 1613년본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것과 합하면 2건2책이 되는 셈이다. 『대전속록』은 현전본 내사기에 의하면 1613년 9월에 묘향산에 편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sup>43)</sup>

1616년본 27건의 수치는 1630년까지 이어진다. 1630년본의 일반서책 목록에서는 『국조병감』 1건이 삭제된 대신 『동국병감』 1건이 추가되지만 이 두 책은 동일한 서책이므로 결국 1630년본에서도 일반서책의 숫자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633년본의 일반서책 목록에서는 『언해소학』, 『언해맹자』, 『언해중용』, 『언해논어』 4건이 삭제되고, 『소학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논어언해』, 『형지안』 등 11건이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삭제되었다는 『언해소학』, 『언해맹자』, 『언해중용』, 『언해논어』는 추가되었다는 『소학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논어언해』와 제목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서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633년본 『실록형지안』에서 실질적으로 추가된 것을 형지안 7건7책뿐이다. 따라서 1633년 묘향산사고에 소장되어 있었던 일반서책의 숫자는 34건이었다.

41) 『資治通鑑綱目』(K2-132) 59권76책.

表紙裏面墨書識記: 萬曆42年(1614) 9月日 訓義綱目1件 香山史庫上.

42) 광해군 6년(161) 9월 7일 병진조.

43) 『大典續錄』(K2-2066) 6권1책.

內賜記: 萬曆41年(1613)9月日 內賜大典續錄1件 香山實錄史庫上 左承旨臣李(手決).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표 4> 묘향산사고 소장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1610년		추가 3건	총 3건
		국조병감 1건2책	
		언해주역 1건6책	
		황화집 1건36책	
1613년	삭제 0건	추가 12건	총 15건
		주자서절요 1건10책	
		언해맹자 1건7책	
		언해중용 1건1책	
		언해소학 1건4책	
		언해논어 1건4책	
		용비어천가 1건5책	
		벽온방 1건1책	
		여지승람 1건25책	
		국조오례의 1건8책	
		좌전 1건14책	
		악학궤범 1건3책	
		내훈 1건3책	
1616년	삭제 0건	추가 12건	총 27건
		동의보감 1건25책	
		훈의강목 1건76책	
		고려사 1건85책	
		시경언해 1건10책	
		고사촬요 1건2책	
		훈몽자회 1건1책	
		벽온방 1건1책	
		벽역신방 1건1책	
		정릉비문 1건	
		대전속록 1건5책	
		사성통해 1건2책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1책	
1624년	삭제 0건	추가 0건	총 27건
1630년	삭제 1건	추가 1건	총 27건
	국조병감 1건2책	동국병감 1건2책	
1633년	삭제 4건	추가 11건	총 34건
	언해소학 1건4책	소학언해 1건4책	
	언해맹자 1건7책	맹자언해 1건7책	
	언해중용 1건1책	중용언해 1건1책	
	언해논어 1건4책	논어언해 1건4책	
		형지안 *7건 7책	

### 4.1.3 1632년 이전 적상산사고 소장 일반서책

다음은 묘향산사고와 적상산사고의 서책이 합쳐지기 이전인 1632년까지의 적상산사고의 일반서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적상산사고의 첫 번째 형지안인 1618년 본 『실록형지안』에 따르면 실록 이외에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만이 적상산사고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상태는 1625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1632년본 『실록형지안』에는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이 빠지면서 9건이 새로 추가되는데 이 9건의 서책은 壬申(1632) 6월 16일 포쇄시 새로 가지고 온 책이다.<sup>44)</sup> 따라서 9건의 일반 서책이 적상산사고에 처음으로 등재됨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황화집』, 『언해중용』,<sup>45)</sup> 『언해맹자』,<sup>46)</sup> 『언해논어』 등 4건은 묘향산사고에 이미 소장되어 있었지만 적상산사고에서는 처음으로 등재된 책이다. 『언

<표 5> 1632년 이전 적상산사고 소장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연도	삭제	추가	총 건수
1618년		추가 1건	총 1건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 18책	
1625년	삭제 0건	추가 0건	총 1건
1632년	삭제 1건	추가 9건	총 9건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 18책	황화집 1건 3책	
		격몽요결 1건 1책	
		언해대학 1건 1책	
		효경대의 1건 1책	
		언해중용 1건 1책	
		언해맹자 1건 7책	
		언해논어 1건 4책	
		왕세자가래등록 1건 1책	
		소학 1건 4책	

44) 1636년본 『실록형지안』에 “壬申(1632) 6월 16日 曝曬時”이라 기재하고 있다.

45) 『中庸諺解』(K1-148) 1책.

內賜記: 崇禎4年(1631) 閏11月日 內賜中庸諺解一件 赤裳山上.

46) 『孟子諺解』(K1-167) 14권 7책.

해대학』의 경우 묘향산사고에 소장되어 있었지만<sup>47)</sup> 묘향산사고 소장 일반서책 목록에 빠져 있다가 1636년본 「형지안」에 다시 등재된다.

#### 4.1.4 묘향산사고와 적상산사고 소장 일반서책의 통합

앞서 살펴보았듯이 1634년본 형지안을 통해서 묘향산사고에 봉안되었던 실록이 적상산사고로 이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서책의 경우는 형지안에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묘향산사고와 적상산사고에 있었던 일반서책들이 1634년본과 1636년본 형지안에 나뉘어 기재되고 있다. 따라서 두 형지안의 일반서책 목록을 한꺼번에 검토해야만 두 사고에 소장되었던 일반서책의 통합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1634년본 형지안을 살펴보면 모두 30건의 일반 서책이 등재되어 있다. 이 서책들은 모두 묘향산 사고로부터 옮겨온 것이었다. 이 가운데 『소학』 1건4책은 1613년본 형지안에는 『언해소학』 1건4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서각 현전본 『소학집주대전』의 내사기록에 따라 1612년 묘향산사고에 봉안되었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1613년본 형지안의 ‘『언해소학』’이라는 기재내용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며 적상산으로 이안하면서 새로 작성한 1634년본 형지안에서 이를 바로잡아 ‘『소학』 1건4책’으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향산사고에는 원래 34건이 있었으므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이 1634년본 형지안에 수록된 것이다. 나머지 4건을 살펴보면 정릉비문 1건,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18책, 『고려사』 1건76책, 『시경언해』 1건10책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릉비문 1건과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18책은 1636년본 형지안에 수록되고 있으며 『고려사』 1건76책과 『시경언해』 1건10책은 1640년본 형지안에 수록되고 있다. 따라서 묘향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일반서책은 1건도 빠짐없이 모두 적상산 사고로 이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內賜記: 崇禎4年(1631) 閏11月日 內賜孟子諺解一件 赤裳山上.

47) 『大學諺解』(K1-143) 1책.

內賜記: 崇禎4年(1631) 閏11月日 內賜大學諺解一件 赤裳山上.

<표 6> 1634년본과 1636년본 형지안 수록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연도	서명	출처	추가건수	총건수
1634년	소학 1건4책	이상 30건 묘향산사고로부터(1633년본)	30건	30건
	훈의강목 1건31책			
	주역언해 1건6책			
	동국병감 1건2책			
	황화집 1건36책			
	주자서절요 1건10책			
	맹자언해 1건7책			
	중용언해 1건1책			
	논어언해 1건4책			
	용비어천가 1건5책			
	<b>벽온방 *2건2책</b>			
	여지승람 1건25책			
	국조오례의 1건8책			
	춘추 1건14책			
	악학궤범 1건3책			
	내훈 1건3책			
	동의보감 1건25책			
	고사촬요 1건2책			
	훈몽자회 1건1책			
	벽역신방 1건1책			
대전속록 1건5책				
사성통해 1건2책				
형지안 *7건 7책				
1636년	정릉비문 1건	이상 2건 묘향산사고로부터(1633년본)	10건	40건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18책			
	황화집 1건3책	이상 8건 적상산사고로부터(1632년본)		
	격몽요결 1건1책			
	언해대학 1건1책			
	효경대의 1건1책			
	언해중용 1건1책			
	언해맹자 1건7책			
	언해논어 1건4책			
	왕세자가례시등록책 1건1책			

1636년본 형지안에서는 모두 10건의 일반서책이 추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릉비문 1건과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18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묘향산사고로부터 옮겨온 것이다. 나머지 서책 8건은 모두 적상산사고에 있던 것들이다. 원래 적상산사고에는 9건의 일반서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소학 1건4책을 제외한 8건이 모두 1636년본 「형지안」에 등재된 것이다. 이때 빠진 소학 1건4책은 1939년본 「형지안」에 등재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부터 적상산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일반서책들도 모두 형지안에 등재된 것이다.

## 4.2 적상산사고 일반서책의 변동

### 4.2.1 1639년~1649년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적상산사고 일반서책이 형성되었는데 이후의 형지안에 나타난 서책목록을 살펴보면 상당한 변동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출인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639년본 형지안을 살펴보면 『훈의강목』, 『동의보감』, 『대전속록』, 『고사촬요』, 『사성통회』, 『훈몽자회』 등 6건이 목록에서 삭제되고 있다. 당시 이 형지안의 작성목적은 고출이었으므로 이들 서책들은 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때 목록에서 삭제된 6건은 1년 뒤인 1640년 4월의 형지안에서 다시 추가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1639년본 형지안에서는 원래부터 적상산사고에 있었던 『소학』 1건4책을 추가로 등재하여 『소학』의 경우 이때부터 2건이 되었다.

1640년 4월의 형지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6건 이외에 『고려사』 1건84책과 『삼강행실등록』 1건1책이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 『고려사』 1건84책은 묘향산사고에 있던 것인데 1634년의 형지안에서는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등재된 것이다. 이전의 형지안에 비해서 책 수가 하나 줄었지만 동일한 서책으로 보인다. 『삼강행실등록』은 1640년 4월의 형지안에 처음 등장하는 책이다.

1640년 4월의 형지안에서도 『벽온방』 1건1책 등 모두 22건의 서책이 목록에서

삭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로부터 5개월 뒤에 작성된 1640년 9월의 형지안을 살펴 보면 모두 33건이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위의 22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의 22건의 서책도 고출되었다가 반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40년 9월의 형지안에서는 모두 33건이 추가되었으므로 앞의 22건 이외에 11건이 추가된 셈이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형지안이 7건에서 16건으로 늘어 9건 증가하였고 『시경언해』 1건10책이 추가되었다. 『논어언해』가 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의 형지안에서 『언해논어』로 되어 있던 1건이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실제로 『논어언해』는 2건이 아니고 1건인 셈이다.

1643년본 형지안에서는 『춘추』 1건이 목록에서 삭제되고 『좌전』과 『형지안』 등 2건이 추가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춘추』와 『좌전』은 동일한 서책이었다. 따라서 1643년본 형지안에서 실제로 추가된 것은 『형지안』 1건1책뿐인 것이다. 형지안은 포쇄나 고출을 하면 당연히 추가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추가된 서책은 없는 셈이다.

1645년 4월의 형지안에서는 『고려사』 1건84책이 목록에서 삭제된 반면에 『향실의궤』 1건4책 등 3건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추가된 서책 목록 가운데 『고려사』 1건85책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고려사』가 실제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기재사항만 84책에서 85책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추가된 것은 2건인데 그 가운데 1건이 『형지안』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실제 추가된 서책은 『향실의궤』 1건이었던 셈이다.

1645년 5월본은 형지안에서는 『형지안』 1건만 추가되었을 뿐 다른 변화는 없다. 이는 고출로 인한 형지안 작성인 것으로 보인다. 1648년본은 1645년 5월본과 내용이 동일하다. 1649년본 역시 삭제 없이 『녹훈등록』 1건과 『형지안』 1건이 추가되었다. 1640년대에는 몇 차례 고출을 이유로 다수의 서책이 목록에서 삭제된바 있지만 곧바로 다음 형지안에서 목록에 추가되고 있었다. 이밖에는 몇 건의 서책이 추가되는 이외에는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표 7> 1639년~1649년 적상산사고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1639년	삭제 6건	추가 1건	총35건
	훈의강목 1건31책	소학 1건4책	
	동의보감 1건25책		
	대전속록 1건5책		
	고사촬요 1건2책		
	사성통회 1건2책		
	훈몽자회 1건2책		
1640년 4월	삭제 22건	추가 8건	총21건
	벽은방 1건1책	훈의강목 1건31책	
	춘추 1건14책	동의보감 1건25책	
	중용언해 1건1책	대전속록 1건5책	
	주역언해 1건6책	고사촬요 1건2책	
	효경대의 1건1책	사성통회 1건2책	
	논어언해 1건4책	훈몽자회 1건2책	
	국조오례의 1건8책	고려사 1건84책	
	악학궤범 1건3책	삼강행실등록 1건1책	
	황화집 1건36책		
	동국병감 1건2책		
	여지승람 1건25책		
	주자서절요 1건10책		
	형지안 *7건7책		
	정릉비문 1건		
	동국신속삼강행실 1건18책		
	소학 1건4책		
1640년 9월	삭제 1건	추가 33건	총53건
	인해논어 1건4책	벽은방 1건1책	
		춘추 1건14책	
		중용언해 1건1책	
		주역언해 1건6책	
		논어언해 *2건8책	
		소학 1건4책	
		효경대의 1건1책	
		국조오례의 1건8책	
		악학궤범 1건3책	
		황화집 1건36책	
		동국병감 1건2책	
		신속삼강행실 1건18책	
		시경언해 1건10책	
		여지승람 1건25책	
		주자서절요 1건10책	
		형지안 *16건16책	
		정릉비문 1건	

1643년	삭제 1건	추가 2건	총54건
	춘추 1건14책	좌전 1건14책	
		형지안 1건1책	
1645년 4월	삭제 1건	추가 3건	총56건
	고려사 1건84책	향실의궤 1건4책	
		고려사 1건85책	
		형지안 1건1책	
1645년 5월	삭제 0건	추가 1건	총57건
		형지안 1건1책	
1648년	삭제 0건	추가 0건	총57건
1649년	삭제 0건	추가 2건	총59건
		녹훈등록 1건1책	
		형지안 1건1책	

#### 4.2.2 1650년대

1650년대에도 다수의 서책이 한꺼번에 고출되었다가 반납되고 있는 점은 1640년대와 비슷한 양상이다. 1652년본 형지안에 따르면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등 5건의 목록을 추가하면서 반사기록도 더불어 기재하고 있다. 즉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는 “辛卯年(1651) 7월일”, 『왕대비전존숭도감의궤』, 『중전책례도감의궤』, 『왕세자책례도감의궤』는 “辛卯年(1651) 8월일”, 『왕세자가례도감의궤』는 “辛卯年(1651) 12월일”에 각각 반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5건의 의궤는 1651년(효종 2)에 반사되어 1652년 형지안에 처음으로 등재된 것이다. 실제 이러한 기록은 장서각 현전본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sup>48)</sup> 『왕대비전존숭도감의궤』,<sup>49)</sup> 『왕세자가례도감의궤』<sup>50)</sup>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5건의 의궤는 이후 같이 움직이는데 1653년의 형지안에서는 『녹훈등록』 1건1책과 함께 한꺼번에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655년에 작성한 형지안에서는 『녹훈등록』 1건을 제외한 5건의 의궤가 다시 목록에 등재되고 있다. 따라서 의궤 5건은 고출되었다가 반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55년에

48) 『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귀K2-2255) 1책: 順治8年 辛卯年(1651)7월일.

49) 『尊崇都監都廳儀軌』(귀K2-2828) 1책: 順治8年 辛卯年(1651)8월일.

表紙裏面墨書識記: 赤裳山城上.

50) 『王世子嘉禮時都監儀軌』(귀K2-2684) 1책: 順治8年 辛卯年(1651)12월일.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작성한 형지안에서는 앞의 의궤 5건 이외에도 『실록등록』 등 5건의 서책이 추가로 목록에 등재되고 있다. 그중 특이한 것은 『芝川集』이다. 『芝川集』은 黃廷彥(1532~1607)의 개인문집으로 외손인 李厚源에 의하여 1632년(인조 10) 목판으로 간행된 책이다. 어떤 연유로 개인문집이 적상산사고에 소장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sup>51)</sup>

<표 8> 1650년대 적상산사고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연도	삭제 건수	추가 건수	총 건수
1652년	삭제 0건	추가 5건	총64건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1건1책	
		왕대비전존승도감의궤 1건1책	
		중전책례도감의궤 1건1책	
		왕세자책례도감의궤 1건1책	
		왕세자가례도감의궤 1건1책	
1653년	삭제 6건	추가 1건	총59건
	녹훈등록 1건1책	형지안 1건1책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1건1책		
	왕대비전존승도감의궤 1건1책		
	중궁전책례도감의궤 1건1책		
	왕세자책례도감의궤 1건1책		
	왕세자가례도감의궤 1건1책		
1655년	삭제 0건	추가 10건	총69건
		실록등록 1건1책	
		형지안 1건1책	
		악학궤범 1건3책	
		의례경전통해 1건36책	
		芝川集 1건3책	
		인조대왕인열왕후부묘도감의궤 1건1책	
		중궁전책례도감의궤 1건1책	
		왕대비전존승도감의궤 1건1권	
		왕세자가례도감의궤 1건1권	
		왕세자책례도감의궤 1건1권	
1657년	삭제 0건	추가 3건	총72건
		녹훈도감의궤 1건1책	
		의례경전 1건32책	
		형지안 1건1책	

51) 『芝川集』(K4-6520) 7권3책: 1632년(인조 10)刊.

마지막으로 1657년에 작성한 형지안에서도 『녹훈도감의궤』, 『의례경전』, 『형지안』 등 3건의 서책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적상산사고의 일반 서책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2.3 1660년대

1660년대는 이렇다 할만한 변화가 없다가 1665년본 형지안에 와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무려 32건의 서책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서책들은 유교 경전들과 의궤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문집 3건이 등장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중 『龜峯集』과 『芝川集』 2건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어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

『龜峯集』의 원래 제목은 『批選龜峯先生詩集』인데 1665년본 형지안에서는 표지의 제목을 따서 『龜峯集』이라 한 것이다. 저자는 宋翼弼(1534~1599)이고, 1622년(광해군 14) 목판으로 간행한 것을 43년 후인 1665년본 형지안에 등재된 것이다.<sup>52)</sup> 『芝川集』은 1655년본 형지안과 1665년본 형지안에 기재되어 있다. 다행히 이 두 본이 장서각에 함께 소장되어 있어 자세한 내역을 살필 수 있다. 『芝川集』은 두 차례 간행되었는데 1632년(인조 10)에 간행된 『芝川集』은 1655년본 형지안에 등재되었고, 1655년(효종 6)에 간행된 『芝川集』은<sup>53)</sup> 1665년본 형지안에 등재되었다. 1655년(효종 6)에 간행된 『芝川集』의 卷末 識語에 보면 이후원이 외조부인 황정욱의 저서 1질을 史閣에 넣어 실추에 대비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개인문집이 사고에 편입된 것은 실추에 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2) 『批選龜峯先生詩集』(K4-6083) 5권1책: 1622년(광해군 14)刊.

53) 『芝川集』(K4-6521) 7권3책: 1655년(효종 6) 刊.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표 9> 1660년대 적상산사고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1660년 4월	삭제 0건	추가 1건	총73건
	형지안 1건		
1660년 8월	삭제 0건	추가 0건	총73건
1661년	삭제 0건	추가 0건	총73건
1665년	삭제 1건	추가 32건	총104건
형지안 1건1책	선조대왕실록수정예과 1건1책	이상 7건 을사(1665)12월/京中輸來	
	효종대왕실록찬수정예과 1건1책		
	효종대왕산릉도감의과 1건1책		
	한사열전 1건4책		
	상례비요 1건1책		
	龜峯集 1건1책		
	의례문해 1건4책		
	대왕대비전왕대비전준승도감의과 1건1책		
	중궁전궁책례도감의과 1건1책		
	부묘도감의과 1건1책		
	시전 1건10책	이상 13건 을사(1665)12월/慶尙道輸送	
	중용구경연의별집 1건4책		
	중용구경연의 1건5책		
	논어 1건7책		
	맹자 1건7책		
	중용 1건1책		
	심경 1건1책		
	서전 1건10책		
	예설 1건7책		
	해편심경 1건10책		
	대학 1건1책	이상 6건 을사(1665)12월/忠淸道輸送	
	주역 1건14책		
	격양집 1건4책		
	맹자언해 1건7책		
	논어언해 1건4책		
	중용언해 1건1책		
	대학언해 1건1책		
	독서록 1건5책		
	芝川集 1건3책		
	기효신서 1건7책		
	暹川集 1건8책		
	을사년(1665)실록등출후포쇄형지안 1건1책		

이번에 추가된 서책들 가운데는 출처가 표시된 것이 상당수 된다. 『한사열전』 등 7건은 ‘京中輸來’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시진』 등 13건은 ‘慶尙道輸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또 『맹자언해』 등 6건은 ‘忠淸道輸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어떠한 연유로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적상산사고에 책을 보내게 되었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각도에서 서책을 사고에 보내 봉안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 4.2.4 1670년대

1670년대에 작성된 형지안으로는 1672년본과 1677년본 2건만이 남아있다. 1670년대에도 적상산사고에는 일반서책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72년본에 『을사년실록등출후포쇄시형지안』 1건만 삭제되고 『잠곡집』 등 9건이 새로 추가되었다. 추가된 9건 중 『잠곡집』<sup>54)</sup>과 『월정집』<sup>55)</sup>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삭제된 『을사년실록등출후포쇄시형지안』은 5년 뒤인 1677년에 작성된 형지안에서는 『형지안』이란 제목으로 목록에 추가되고 있다. 고출되었다가 반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1677년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형지안을 비롯하여 11건의 서책이 추가되었다.

1670년대에 추가된 서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1672년에 추가된 9건은 유교경전, 역사서, 개인문집 등 다양한 종류의 서책이었음에 비해서 1677년에 추가된 11책은 『형지안』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의궤였다. 이들 의궤들은 1677년본 형지안에 처음 등재되었다. 1696년본 형지안을 보면<sup>56)</sup> 의궤들의 작성시기가 표시되어 있다. 『정해창덕궁수리도감의궤』 1건은 1647년 6월에,<sup>57)</sup> 『기축인조대왕산릉도감의궤』 1건은 1649년 5월에,<sup>58)</sup> 『기유부묘도감의궤』 1건은 1669년 10월에,<sup>59)</sup> 『신

54) 『潛谷集』은 표지제목. 권수제는 『潛谷先生遺稿』로 장서각(K4-6437)에 13권8책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 목록에는 간행시기를 “顯宗年間(1668~1674)”으로 잡고 있지만 1672년본 형지안의 기록을 감안한다면 1672년 8월 이전으로 좁힐 수 있을 것이다.

55) 『月汀集』은 표지제목. 권수제는 『月汀先生集』으로 장서각(K4-6366)에 소장되어 있다.

56) 『康熙35年(1696) 6月日 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K2-3784).

57) 順治丁亥(1647) 6月日.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해가례도감의궤』 1건은 1671년 4월에,<sup>60)</sup> 『병진부묘도감의궤』 2건은 1676년에<sup>61)</sup> 각각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10> 1670년대 적상산사고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1672년	삭제 1건	추가 9건	총 112건
	을사년실록등출후포쇄시형지안 1건1책	형지안 1건1책	
		잠곡집 1건8책	
		주문작해 1건8책	
		춘추 1건10책	
		동국통감 1건28책	
		열성어필 1건1첩	
		동국명필 1건1첩	
		월정집 1건1책	
		임자년실록포쇄시형지안 1건1책	
1677년	삭제 0건	추가 11건	123건
		형지안 1건1책	
		정해창덕궁수리도감의궤 1건1책	
		기축인조대왕산릉의궤 1건1책	
		기유부묘도감의궤 1건1책	
		신해가례도감의궤 1건1책	
		병진부묘도감의궤 *2건2책	
		병진존숭도감의궤 1건1책	
		병진책례도감의궤 1건1책	
		현종조실록형지안 1건1책	
		현종실록의궤 1건1책	

이 가운데 일부 의궤는 1677년 이전에 작성된 형지안에 이미 등재되었어야만 한다. 예컨대 1647년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정해창덕궁수리도감의궤』의 경우 1648년본 형지안부터 등장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의궤들은 1677년본에 한꺼

58) 順治6年己丑(1649) 5月日.

59) 己酉(1669) 10月日.

60) 辛亥年(1671) 4月日.

61) 康熙15年丙辰(1676).

번에 등재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실제 서책은 이미 도착했는데 미정리 상태로 있다가 1677년 형지안 작성할 때 확인하여 등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이 6건의 의궤들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sup>62)</sup>

#### 4.2.5 1680년대

1680년대에는 적상산사고 일반서책 목록에 큰 변동이 있었다. 목록에서 빠지는 책도 상당수 되었지만 추가되는 책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각 서책별로 기재내용도 풍부해졌다. 1680년대 형지안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서책에 刊寫 기록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다.

1681년본 형지안의 경우가 가장 목록의 변동이 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대전속록』 등 7건의 서책이 목록에서 사라졌다. 이들 서책들은 이후 17세기의 형지안에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옮겨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책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1681년본 형지안에서 새로 추가된 서책은 모두 21건으로 삭제된 서책보다 훨씬 많다.

다음은 추가 21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의궤가 10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지안이 5건이다. 형지안의 경우 이전에는 통칭해서 전체의 건수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1681년본 부터는 형지안의 개별서명을 밝혀서 기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추가된 의궤들의 경우 1681년본 이전의 刊寫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인경왕후산릉도감의궤』 1건처럼 1681년에 간인되어 곧바로 1681년본에 등재된 경우도 있다. 이 의궤는 숙종 6년부터 그 다음해까지 왕비김씨(인경왕후)의 산릉을 조성할 때 만든 의궤로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sup>63)</sup> 이외에도 『산릉도감의궤』

62) 『정해창덕궁수리도감의궤』 장서각미인수도서(文K2-3599), 『기축인조대왕산릉도감의궤』(K2-2367), 『기유부묘도감의궤』(K2-2224), 『신해가례도감의궤』(K2-2589), 『병진부묘도감의궤』(K2-2226), 『병진부묘도감의궤』(K2-2241).

(1659년),<sup>64</sup> 『산릉도감의궤』(1674년),<sup>65</sup>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sup>66</sup> 『추쇄도감의궤』,<sup>67</sup> 『사진별의궤』,<sup>68</sup> 『의례도』,<sup>69</sup> 『실록포쇄시형지안』,<sup>70</sup> 『동문선』<sup>71</sup>도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1685년본 형지안과 1689년본 형지안의 경우 목록에서 삭제된 것은 『현종실록의궤』 1건뿐이고 9건이 추가되고 있다. 1685년본 형지안에서는 『가례도감의궤』 1건과 『산릉도감의궤』 1건만 추가되었을 뿐 다른 변화는 없었다. 『산릉도감의궤』 1건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sup>72</sup> 1689년본 형지안에서는 『현종실록의궤』 1건이 삭제되고 7건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책은 의궤 4건과 개인문집 2건, 형지안 1건인데 대부분 1687년 4월에 작성된 것들이다. 새로 刊寫된 책들이 사고에 봉안되고 있는 것이다. 1650년대부터 적상산사고에 개인문집이 소장되기 시작하였는데 1680년대에도 『鳳村集』<sup>73</sup>과 『汾西集』<sup>74</sup> 2건이 봉안되고 있다. 이 가운데 『汾西集』의 저자는 朴瀾(1592~1654)가 선조의 사위이므로 문집이 사고에 봉안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63) 장서각(귀K2-2324).

64) 장서각(K2-2320).

65) 장서각(K2-2323).

66) 장서각(귀K2-3641).

67) 장서각(귀K2-3671).

68) 장서각(K2-2537).

69) 장서각(K1-89).

70) 장서각(귀K2-3747).

71) 장서각(K4-84). 1601년 영변부사고에 소장된 적이 있었으나 적상산사고에서는 1681년본부터 수록되기 시작한다.

72) 장서각(K2-2325).

73) 장서각(K4-6076).

74) 장서각(K4-6080).

<표 11> 1680년대 적상산사고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1681년	삭제 7건	추가 21건	총137건
	대전속록 1건5책	인경왕후산릉도감의궤 1건2책	신유(1681)8월16일
	왕세자가례등록 1건1책	인조조실록의궤 1건1책	순치10년(1653)6월일
	실록등록 1건1책	심경발휘 1건1책	
	삼강행실등록 1건1책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 1건1책	만력44년(1616)
	향실의궤 1건4책	산릉도감의궤 1건1책	갑인(1674)2월
	의례경전통해 1건36책	을사년실록등출후포쇄시형지안 1건1책	을사(1665)12월
	병진부묘도감의궤 1건1책	영녕전수개도감의궤 1건1책	강희6년(1667)7월일
		왕세자책례도감의궤 1건1책	승정7년갑술(1634)5월일
		추쇄도감의궤 1건1책	순치14년(1657)7월일
		경국대전 1건3책	을사(1665)12월일
		직지방 1건6책	
		노걸대언해 1건2책	
		의례도 1건6책	
		사전별의궤 1건1책	
		동문선 1건56책	
		실록포쇄시형지안 1건1책	신유(1681)8월일
		효종조실록형지안 1건1책	신축(1661)3월일
		인조조실록봉안형지안 1건1책	계사(1653)11월일
		인조조실록형지안 1건1책	순치11년(1654)10월일
		산릉도감의궤 1건1책	순치16년기해(1659)
		왕세자가례도감의궤 1건1책	정묘(1627)2월일
1685년	삭제 0건	추가 2건	총139건
		가례도감의궤 1건1책	신유년(1681)
		산릉도감의궤 1건1책	계해년(1683)
1689년	삭제 1건	추가 7건	총145건
	현종실록의궤 1건1책	강희14년(1675) 봉촌집 1건1책	정묘(1687)4월일
		분서집 1건4책	정묘(1687)4월일
		존숭도감의궤 1건1책	정묘(1687)4월일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 1건1책	정묘(1687)4월일
		실록각수개시의궤 1건1책	정묘(1687)4월일
		실록봉안형지안 1건1책	을축(1685)9월일
		장영왕후산릉도감의궤 1건1책	기사(1689)9월일

## 4.2.6 1690년대

1690년대의 특징은 1680년대와 마찬가지로 각 서책마다 刊寫기록을 기재하고 있는 동시에 책의 보관 상태까지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쇄 시 책의 상태를 점검하여 腐破, 傷汚와 같은 표시를 하였다. 1690년대에는 1690년본, 1691년본, 1696년본 등 3건의 형지안이 남아있다.

1690년본 형지안에서 추가된 3건 가운데 2건은 1689년과 1690년에 포쇄와 고출을 끝낸 다음 작성한 형지안으로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고,<sup>75)</sup> 1건은 1689년본의 일반서책 목록에서 삭제되었던 『현종실록의궤』가 다시 수록된 것이다. 고출되었다가 1년 만에 되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691년본 형지안에서 추가된 7건은 모두 1691년 9월 포쇄 시 가져온 책을 곧바로 형지안에 등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장열왕후부묘도감의궤』 1건,<sup>76)</sup> 『지승전수리도감의궤』 1건,<sup>77)</sup> 『실록포쇄형지안』 1건<sup>78)</sup> 이 3책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1691년본 형지안에서는 4건의 서책이 목록에서 삭제되었는데 그 가운데 2건인 『임자년실록포쇄형지안』과 『신해가례도감의궤』는 1696년본 형지안에서는 다시 추가되고 있다. 고출을 위해 꺼내갔다가 다시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1696년본 형지안에서는 8건 삭제됨에 동시에 8건이 추가되는데 추가된 8건 모두 의궤와 형지안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가운데 2건은 1691년에 삭제되었다가 다시 수록된 것이다. 『신해가례도감의궤』는 숙종의 세자시절 빈 광주김씨(인경황후)의 가례도감으로 1671년에 처음 등재되었다가 1691년에 삭제된 바 있는데 1687년 腐跋가 이루어 졌다는 책의 상태표시와 함께 다시 등재되었다.

『병진부묘도감의궤』 1건은 1677년 이후 사라졌다 이번에 다시 수록된 것이다. 그리고 1696년본에 처음 등장하는 병인년(1686) 작성의 『존숭도감의궤』<sup>79)</sup>와 『산릉

75) 『赤裳山實錄曝曬形止案』(귀K2-3783), 『赤裳山實錄考出時形止案』(귀K2-3729).

76) 『祔廟都監都廳儀軌』(K2-2230).

77) 『儲承殿儀軌』(K2-2485).

78) 『實錄曝曬形止案』(귀K2-3763).

79) 『尊崇都監儀軌』(K2-2834).

도감의궤』<sup>80)</sup>는 인조의 계비 장열왕후 조씨에 대한 의궤이고, 『책례도감의궤』<sup>81)</sup>는 숙종 16년 희빈 장씨의 책례의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지안>은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삭제와 추가를 되풀이 하는 가운데 순수하게 추가되는 서책이 늘어나면서 전체 일반서책의 수효는 1696년 149건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1690년대 적상산사고 일반서책 목록의 변동

1690년	삭제 2건		추가 3건		총 146건
	부묘도감의궤 1건1책	신축(1661)	실록포쇄시형지안 1건1책	기사(1689)9월일	
	芝川集 1건3책		실록고출시형지안 1건1책	경오(1690)5월일	
			현종실록의궤 1건1책	강희14년(1675)5월일	
1691년	삭제 4건		추가 7건		총 149건
	논어언해 1건4책	을사(1665)	장열왕후부묘도감의궤 1건1책	신미(1691)9월일	
	임자년실록포쇄형지안 1건1책		저승전수리도감의궤 1건1책		
	신해가례도감의궤 1건1책		책례도감의궤 1건1책		
	실록보심형지안 1건1책	승정13년(1640)	명성왕후개찬지문 1건1책		
			인경왕후개찬지문 1건1책		
			실록포쇄형지안 1건1책	신미(1691)9월일	
			실록포쇄시형지안 1건1책		
1696년	삭제 8건		추가 8건		총 149건
	존숭도감의궤 1건1책	정묘(1687)4월일	임자년실록포쇄형지안 1건1책	임자(1672)8월일	
	명성왕후부묘도감의궤 1건1책	정묘(1687)4월일	신해가례도감의궤 1건1책	신해년(1671)4월일	정묘(1687)腐破
	장열왕후산릉도감의궤 1건1책	기사(1689)9월일	산릉도감의궤 1건1책	무진(1688)	
	책례도감의궤 1건1책		병진부묘도감의궤 1건1책	병진(1676)	
	인선왕후부묘도감의궤 1건1책	강희15년(1676)	존숭도감의궤 1건1책	병인(1686)	
	실록보안시형지안 1건1책	만력4(1576)	부묘도감의궤 1건1책	병인(1686)	
	인조조실록형지안 1건1책	순치11년(1654)	책례도감의궤 1건1책	강희29년경오(1690)	
	시전 1건10책		포쇄형지안 1건1	병자(1696)6월일	

80) 『山陵都監儀軌』(K2-2326).

81) 『冊禮都監廳儀軌』(귀K2-2721).

## 5. 결 론

본 연구는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 36건에 수록된 일반 서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선시대 사고에 소장된 일반서책의 장서구성과 변동 상황을 추적한 연구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상산사고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상산사고는 1614년에 설치되었지만 새로 편찬한 선조실록을 제외한 나머지 실록들은 1633년 1월 이전까지 여전히 묘향산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나머지 실록들이 적상산사고로 완전히 이안한 시기는 1634년이었다. 묘향산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일반서책들도 이때 실록과 함께 적상산사고로 이안되었다.

다음으로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의 일반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형지안들은 어떤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작성되지 않았고, 봄은 4월에, 가을은 9월에 작성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목적으로는 포쇄, 봉심, 봉안, 고출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개는 예문관 봉고, 대고, 검열이 작성하였지만 형지안의 작성목적이 봉안, 등출, 고출일 때는 춘추관 당상과 기사관이 함께 파견되어 작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적상산사고 일반서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묘향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일반서책 34건과 새로 만들어진 적상산사고의 일반서책 9건이 합쳐져서 적상산사고의 장서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지안의 목록상 두 곳의 장서가 완전히 통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묘향산사고의 일반서책은 하나도 빠짐없이 적상산사고로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 단 17세기초 실록이 한때 봉안되었던 영변부사고에 역사류, 천문산법류가 주류를 이룬 97건의 서책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이 서책들은 실록과는 달리 묘향산사고로 옮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적상산사고로도 이안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렇게 형성된 적상산사고의 일반서책이 어떠한 변동을 겪고 있는지 형지안에 수록된 목록을 통해서 추적해 보았다. 첫째 장기적으로 일반서책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34년 일반서책의 건수가 34건이던

것이 1696년 단계에서는 149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전류가 중심이 되다가 의궤류가 늘어났다. 17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 개인의 문집류도 봉안되기 시작하는 점이 눈에 띄는 현상이다. 또한 다수의 서책이 한꺼번에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가 다음 형지안에서 목록에 추가되는 현상도 많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히 서책을 봉안하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었으며 사고에 소장된 서책들도 사장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종적으로는 18세기와 19세기에 대한 연구를 이어서 수행하고 횡적으로는 규장각 소장 『실록형지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한다면 조선 후기 왕실 도서 변동의 전체상을 그려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의 구체적 데이터들은 장서각과 규장각의 현존본 장서를 점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존 목록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재정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영철. “태백산사고의 연혁과사고지현황.” 『사고지조사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1986.
- 박지선. “조선왕조실록 보존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규장각 증축 준공 기념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23-37.
- 배현숙. “강화부사고수장본고.” 『규장각』 3(1979). 85-107.
- 배현숙. “조선조 사고의 장서관리.” 『규장각』 2(1978). 11-56.
- 배현숙. “오대산사고와 수장서적에 대하여.” 『서지학연구』 창간호(1986). 59-104.
- 배현숙. “정족산사고 실록 조사기.” 『규장각』 10(1987). 61-128.
- 배현숙. “태백산사고 실록 판본고.” 『규장각』 11(1988).
- 배현숙. 『조선실록연구서설』. 대구: 태일사, 2002.

- 백 린. “전주사고와 동장서의 소개경위에 대하여.” 『한국비브리오』 1(972).
- 백 린. “태백산사고 소장본에 대하여.” 『도서관보』 8권 1호(1971. 6). 16-23.
- 백 린. “향산실록 포쇄 이안 무주적상산형지안.” 『국학자료』 2(1972. 4). 18-20.
- 신병주. “조선왕조실록의 제작과 포쇄.” 『조선왕조실록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규장각 증축 준공 기념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1-22.
- 신병주. “실록형지안을 통해본 조선왕조실록의 관리체계.” 『국사관논총』 102(2003).
- 신병주. “조선왕조실록의 봉안의식과 관리.” 『한국사연구』 115(2001). 75-105.
- 신석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 『사총』 5(1960).
- 『융희4년 4월무주군적상산성사각조사형지안』. 필사본.
- 이정구. 『월사집』. 서울: 경문사, 1982.
- 이현중. “개항 후 사고보존상황.” 『백산학보』 8(1976). 459-487.
- 『전라도 형지안』(장서각 2-3786). 필사본.
- 조병유. 『적성지』. 권5. 고적.
- 조선총독부취조국. 『도서관계서류철』. 사본.
- 차용걸 외. 『사고지조사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1986.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所藏 儀軌目錄』. 2006.

